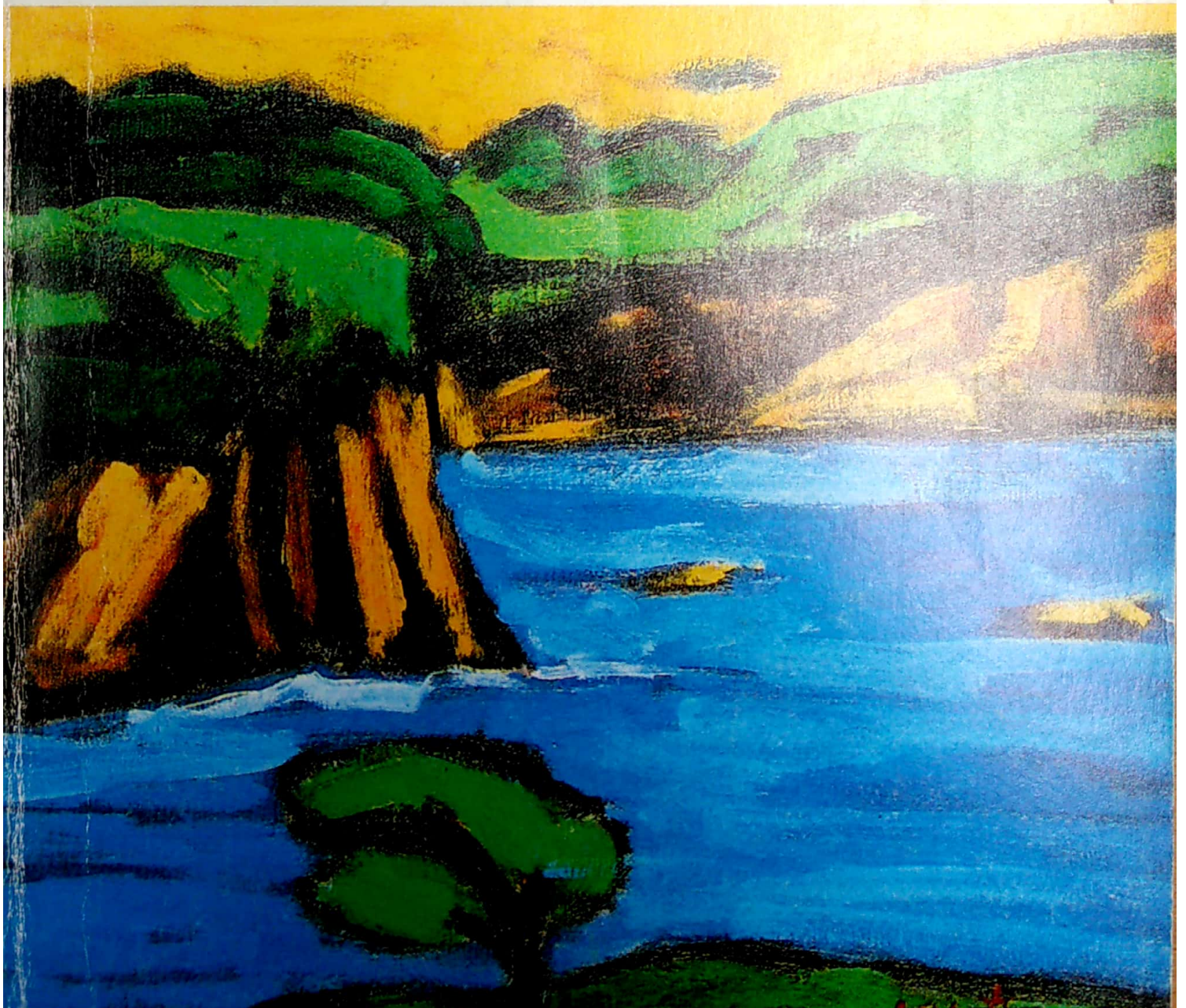


螢嶺

82

1997
초여름호

● 地域文化 · 地域人情 · 地域情報 ●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데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시편 128편 1~2절 말씀 —

편 / 집 / 후 / 기

전주문화원에서 2개월이 넘게 전주시민 가정에 가훈을 무료로 써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인간성 회복에도 뜻을 두었지만 우리 전주문화원을 시민의 사랑방으로 개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첫날부터 30여명의 회의실이 혼잡하도록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진지하게 가훈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고 전주문화원이 시민들과의 밀착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예향전주 ·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입버릇처럼 뇌까려온 예향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예향전주의 제모습 찾기와 예향전주 바로 세우기에 도움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정에 바쁜 정동영 · 장영달의원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김현정 · 김두성씨의 귀한 글을 받는데 대하여도 고마운 인사를 한다.

노령과 전주문화원이 「주부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한데 따른 작품을 선해준 김용옥시인에게 감사한다. 주부문학 교실은 부설사업으로 매년 갖고 다소의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예산의 태부족으로 아쉽기 짝이 없다. 역시 김용옥 시인의 노고가 많음을 알린다.

〈송〉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위원회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螢 嶺

비매품 · 1997년 6월(제82호)

인쇄/1997년 5월 31일 · 발행/ 1997년 6월 2일

발행인/金 光 鎬

편집인/宋 榮 相

편집장/文 炯 植 · 인쇄/徐 靜 歡

공보처 등록 마-962호 · 등록일/1981년 8월 10일

발 행/全州文化院

靈嶺

● 地域文化 · 地域人情 · 地域情報 ●

- | | | |
|---------------------------------|--|----------|
| 8 | 권두제언
예술의 전당 기공을 서둘러야 | 김광호 |
| 10 | 全州禮讚詩 感賞①
풍남문, 한벽루 | 백양춘 |
| 특별기획 I · 예향전주 무엇이 문제인가 | | |
| 15 | 100년을 생각하는 문화도시 전주만들기 | 정동영 |
| 25 | 전주의 문화예술 그 현실과 발전전략 | 장영달 |
| 특별기획 II · 예향전북의 긍지를 되찾자 | | |
| 33 |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 중장기계획 | 박 영 |
| 특별기획 III · 예향전주 무엇이 문제인가 | | |
| 41 | 기업과 문화예술 공존의 필요성 | 박만기 |
| 47 | 지방의 기업문화를 위한 고언 | 이흥근 |
| 52 | 기업의 문화인식 이대로 좋은가 | 장세진 |
| 65 | 전북문화발전을 위한 세미나 | 정리 · 이종근 |
| 57 | 특별대담
전주시 박인식 문화관광국장과 함께 | 정리 · 문형식 |
| 72 | 이호선칼럼
거짓말쟁이들의 백화점 진열장 | 이호선 |
| 74 | 고향을 생각한다
본적을 전북으로 옮기려는 국민적 움직임 | 김현정 |
| 80 | 나의 애창곡
반달에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까지 | 김두성 |
| 83 | 이땅의 문화재를 찾아서
부석사(浮石寺) 탐방기(探訪記) | 송정덕 |
| 86 | 나의 여고시절
아름다웠던 이팔청춘의 여고시절 | 김용욱 |
| 91 | 관광전주 볼거리
문화유적 레저 등 테마관광 | 박지현 |

1997년 6월호

82

題字/友山 宋河璟 · 表紙畵/조래장

97 전주, 새롭게 바뀔시다 ④

전주 전통시가지 보존과 신시가지 개발 유봉영

103 이해 돕는 詩 감상법⑤

시조 부흥운동의 기수 가람(Ⅱ) 정희수

108 우리말 우리글

‘딸꾹질’과 ‘태각질/패각질’ 이태영

110 좋은 글귀풀이

분서갱유(焚書坑儒) 유풍연

112 한의학요법⑪

장세척요법 송용선

114 續 나의 文學 60年⑤⑥

시인 김해강(金海剛) 일기초(日記抄) 정리 · 조규화

118 全州風物記④③

전주천변(全州川邊) 송영상

71 내고장 山河스케치

위봉산성(威鳳山城) 이방우

123 표지화초대석

바다 · 10호 조래장

권말부록 · 주부문학교실

124 주부문학교실을 열면서

김용옥

125 동계U대회 자원봉사를 마치고

김순영

128 오월이 오면

김진숙

130 고추

김연주

133 그 언니

박소연

136 풍남제 有感

박수영

140 내부수리계획

양복임

143 천평을 달아주었으면

임숙례

146 시계를 바라보며

이영주

154 편집후기

편집실

타구도 준비했는데 가래나 침을 뱉는 조그마한 요강형태의 낫쇠 타구를 혼수품으로 챙겨 귀여움을 받았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생활하는 아파트 주거환경에서 볼 때 웃음을 참기 어려운 요강과 뒷간 이야기는 두고두고 재미있을 게다.

■ 향수어린 WC·노크 ■

요즘에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난 다음에 변기와 연결한 세척기로 향문을 깨끗하게 씻기도 한다. 날이 갈수록 화장실 문화는 그만큼 신선해진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드러운 화장지를 사용한다.

옛날에는 신문지조차 귀해서 마른 풀을 부벼 얇고 부드럽게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속칭 밑을 닦는다고 했다. 종이가 없고 급한 때는 아이들 교과서를 쪽 찢어가지고 달려간 변소였다. 변소를 「WC」라고 크게 쓰고 「노크」라는 표시를 꼭 했다.

목욕탕까지 갖춘 오늘날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게다.

■ 물밥 무밥 시래기밥 ■

보릿고개가 있었다. 춥고 긴 겨울을 넘기고 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의 보릿고개는 참으로 넘기 힘든 고개였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가 힘들어 눈발을 헤치고 뽕죽하게 솟아오른 보리밭의 보리잎을 베어다 한줌의 보리와 함께 멸건 죽을 쑤어먹던 보릿고개이다. 보리잎 이외에는 들녘에서 나물조차 찾기 힘들었다. 강추위에 미처 먹을 수 있는 나물도 새싹이 돌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파랗게 솟아난 보리잎만이 유일한 먹거리였다. 초근목피라고 하여 소나무 껍질을 벗겨 나오는 연한 소나무 살몐을 삶아 먹기도 했다.

하루 한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어린 딸은 부잣집 심부름이나 허드렛일 하는 잔손발로 보내야 했고 아들은 남의 집 머슴, 심지어는 아내도 부잣집에 식모살이를 갔거나 남정네 또한 일년 새경을 미리 받고 머슴살이에 나섰을 때의 식생활이다.

가을걷이를 마칠 무렵에는 다

가을걷이를 마칠 무렵에는 다소 식량이 넉넉하여 배부르게 먹고 살 수는 있었으나 어느 집이고간에 식량절약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일손을 놓고 긴긴 겨울철을 보내던 나날의 아침은 가급적 늦잠을 자고난 다음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옛부터 우리네를 백의민족이라고 해왔다. 흰옷을 즐겨 입기 때문이겠다. 남정네의 한복과 두루마기는 흰옷이었고 여인네들도 흰옷 입기를 즐겼다.

소 식량이 넉넉하여 배부르게 먹고 살 수는 있었으나 어느 집이고간에 식량절약은 고통스

러울 정도였다. 일손을 놓고 긴긴 겨울철을 보내던 나날의 아침은 가급적 늦잠을 자고난 다음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저녁은 고구마나 감자 등을 삶아 먹기도 했지만 이때의 밥은 보리밥이건 쌀밥이건간에 배부르게 먹지를 못했다. 쌀 한 줍에 고구마, 무를 썰어넣거나 시래기를 넣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런 밥을 먹었다. 된장이나 양념간장으로 비벼먹었는데 거습이 어찌나 많았는지 소가 여물을 먹는 것과 비할바 아니었다.

이때 무밥 시래기밥 등을 어느 집이나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한겨울 뿐이었다. 들녘의 논의 녹을 무렵이면 아무리 절약을 했든지 쌀독은 바닥이 나가 마련이었다.

보릿고개가 시작되면 농사철 일을 핑계로 미리 쌀 한두어되, 보리 두어말을 미리 받아다가 시래기밥도 해먹고 무밥을 해먹었는데 얼굴들은 부앙이 난 것처럼 누우렁고 부석부석 부어올랐다. 물밥은 죽도 아닌 멀건 물 속에 보리나 쌀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넣었으나